

# 綜合科學으로의 防災技術을

理事長 李 大 鎔



우리들이 日常生活을 營爲하는 過程에는 크고 작은 갖가지 災難을 당하는 境遇가 많이 있습니다.

人類는 그 出現과 더불어 여러가지 類型의 災難과 싸웠으며 또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 많은 努力을 傾注하여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文明은 災害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始原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며, 그 不斷한 努力의 結晶體라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災難은 人爲의인 것과 自然的인 것으로 區分할 수가 있습니다.

人爲의인 것 중 火災와 같은 災難은 地震이나 水害 또는 旱魃과 같은 自然的인 災難에 비할때 發生頻도가 잦은 것이 그 특징입니다. 또한 이는 人間에 의해서 되풀이되는 人爲의인 現象으로 人間에 의해 防止될 수 있다는데서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災害는 疾病과 같이 文明의 發達에 따라 原因的으로 急激하게 감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火災만은 物質文明의 發達에 비례하여 그 發生의 回數나 規模가 더욱 增大될뿐 아니라 社會의 安寧秩序維持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當爲性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火災 發生의 原因을 보면 극소수의 自然現象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人爲의으로 發生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불에 依한 災禍는 분명히 말해서 天災가 아닌 “人間이 自招하는 災害”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火災를 極少化하고 被害로부터 人命과 財産을 保護하기 위한 構造物에 대한 安全點檢이나 大衆啓蒙을 위한 弘報活動 그리고 防災科學分野에서의 研究는 꾸준히 계속 되어야 할것입니다.

일찌기 우리나라는 產業構造의 基幹을 農業에 依存하는 農本國이였습니다. 그래서 治山하여 治水하는 것이 民生安全을 위한 根源으로서 큰 比重을 두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現代에 와서는 農村이나 都市의 立地的 條件이 현저하게 變化를 가져왔습니다. 近代의인 工場과 함께 모든 건축물이 大規模化되었고 여기에 人口增加와 產業技術의 눈부신 發展을 이룩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古來로부터 전수되어온 治山治水와 並行하여 治火에도 政策的인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必然的인 課題가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火災가 發生하면 鎮火하면 된다는 姑息의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防災技術을 高度로 發展시키기 위해 火災豫防에 대한 多角的인 知見을 綜合科學으로서 集大成시켜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이러한 努力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努力을 實現하기 위해 先進外國으로 부터의 多様な 防災技術을 導入해 와야겠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資料蒐集과 情報交換, 각종 現代裝備에 대한 理論과 操作法의 習得, 그리고 防災綜合對策의 研究등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當面課題들이 우리의 예지와 총화로서 解決해야 하는 重要한 일들입니다.

우리들의 나아갈 方向과 使命感을 깊이 認識하면서 모든 防災業務分野에서 心血을 기울이는 關係人士들의 勞苦에 敬意를 表하면서 本誌가 조금이라도 參考되었으면 하고 希求하는 바입니다.